

온실 해충 자동예찰기술 전국 보급

농진청, '지능형 닷' 납입 등 전국 1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오늘 시설원에 연구소서 연시회

온실에 발생한 해충을 스마트 폰으로 유인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닷(스마트 트랩)'이 전국에 보급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해충 유인 장치인 '스마트 트랩' 보급을 위해 12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경남 함안에서 '스마트 트랩을 이용한 해충 자동 예찰 기술 연시회'를 연다.



지능형 닷(스마트 트랩)

명이 참석해 온실 해충 자동 예찰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에서 2021년 개발한 이 기술은 사람이 직접 온실의 해충을 살펴면서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했다. 스마트 트랩은 내방류 4종, 노린재 4종 등 여러 종의 해충을 각 해충 생리에 맞게 유인·포획할 수 있도록 다파장 LED(LED), 성페로몬, 집합페로몬을 활용해 만들었다.

온실 해충 자동 예찰 기술은 덤핑 기반 해충 예찰 진단 시스템으로, 농장주는 유인 트랩 안의 해충 종류와 밀도, 주변 온도나 습도, 그리고 농약과 방제 기술정보를 스마트 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스

마트 트랩과 예찰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면 해충 유인 효과를 높여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해충 진단 정보를 받아봄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방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박종일 씨(경북 의성)는 "시설 온실 인의 해충은 초기 방제가 어려워 걱정이었는데 앞으로 스마트 트랩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유승우 과장은 "시설원에 농가의 방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시범 사업화해 전국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오늘부터 올 상반기 순창장류 스마트혁신 역량교육

순창장류 스마트혁신 역량교육

전북도경제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순창장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12일부터 '상반기 순창장류 소공인 스마트혁신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순창장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지원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창군 경진원이 함께 운영하는 기관으로 순창지역 전통장류 제조 소공인들의 성장 발전을 위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순창장류특구에 위치하고 있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순창발효소스생산동 2층 교육장에서 12일부터 한 달간 5회(1회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소공인들의 온라인 비즈니스 역량 확보를 위한 소셜플랫폼 구축, 블로그마케팅, 유튜브마케팅 교육으로 현대사회 소비패턴 및 타겟 소비자의 변화에 대응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기법 배양을 위한 스마트혁신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경진원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교육사업과 연계 내실화를 다지고, 순창장류특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통해 순창 전통장류 집적지 소공인의 협업 활동을 강화해 경제활동 촉진과 더불어 한국 전통 장류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청-개발공사, 수변도시 매립공사 물막이 공정 마무리

새만금청-개발공사, 수변도시 매립공사 물막이 공정 마무리

새만금이 선보일 첫 도시이자, 첨단 기술과 아름다운 수변이 어우러진 명품도시가 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중모)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제)는 수변도시 매립공사의 물막이 공정이 12일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수변도시 매립은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준설과 제방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엔 물막이를 위한 사석 제방(10.46km)이 완료됨에 따라 매립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중모 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는 친수·친환경·스마트시티라는 3대 특징을 가진 자족형 도시로, 여유로운 수변생활과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관광 기능을 도입해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병제 사장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매립공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공사품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KT&G 전북본부는 11일 생활속 ESG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에코백 살리기 131운동' 챌린지를 진행했다.

"공유 장바구니 문화 확산 응원합니다"

KT&G 전북본부, ESG실천 에코백살리기 131운동 챌린지

KT&G 전북본부(본부장 차형철)는 11일 생활속 ESG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에코백 살리기 131운동' 챌린지를 진행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챌린지는 에코백 사용이 진짜 친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131회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

로 소공백, 비닐봉투 등 일회용 물품 사용을 지양하고 에코백, 다회용백의 지역사회 공유를 통해 자원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기획했다.

이날 KT&G 임직원들은 사용하지 않은 다회용백(에코백등)과 친환경 컵세트, 친환경 노트 등을 평화사회복지관에 기부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전달

되도록 했다.

차형철 KT&G 전북본부장은 "에코백 살리기 운동을 통해 공유 장바구니 문화가 확산되기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다음 챌린지 기관으로 하이트 진로 전문복지서비스를 4호 기관으로 지명했다.

/김윤상 기자

AI·빅데이터 도시과학 연구과제 발굴 '맞손'

LX, 서울시립대와 협약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가 AI·빅데이터 분야의 도시과학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힘을 모은다.

LX공사 김정렬 사장과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지난 10일 서울시립대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활용 및 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앞두고 양 기관이 빅데이터의 공동 활용, 국민 통합 행정 서비스와 연계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빅데이터 연구·개발 관련 상호 협력 기반 구축,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한 학술 교류, 데이터 제공 및 공동 활용, 분석기술 교류 등을 위해 적극 협업할 방침이다.

LX공사는 2018년부터 전국 15개 자치단체에 디지털트윈 기반 데이터와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LX



LX공사 김정렬 사장과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지난 10일 서울시립대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활용 및 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간정보연구원 내 AI·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신설해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국토·도시 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시립대도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를 통해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통한 도시연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AI 연구 등을 추진하고 도시빅데이터융합학과 등을 신설해 빅데이터 전문교육에 주력하여 도시과학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김정렬 사장은 "서울시립대와 국

민 체감형 도시 행정 서비스를 위해 협업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면서 "다양한 도시문제를 선제적으로 예측·해결함으로써 도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LX공사의 국토공간정보 빅데이터와 서울시립대학교의 AI 및 빅데이터 연구 역량을 결합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솔루션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올해도 온누리에 사랑을'

실험사회공헌재단, 취약계층 120명에 생계자금 지원

실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재단)이 2022년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을 통해 취약계층 120명에게 4억 원 상당의 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카카오와 함께 모금 채널(카카오같이 가치)을 운영하고 있다. 모금 채널을 통해 선정된 취약 가정에는, 채널에서 모집된 금액에 재단의 지원금 최대 400만 원을 더해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온라인 모금 플랫폼과의 연계로 누구나 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것도 우리 주변의 복지 사각지대에는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다"며 "실험사회공헌재단은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사랑 실천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실험사회공헌재단은 2022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포용금융 지원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멘토링 및 장학금 지원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지원사업 ▲재난재해구호 등 108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소상공 사회안전망 자리매김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출범 15년만에 올 가입자 160만명 돌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노란우산 출범(2007년) 15년만인 올해 재적 가입자수 160만명, 부금액 19조 3,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출범 첫해인 2007년 4,000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10만명, 2013년 50만명, 2018년 100만명에 이어 올해(6월 기준) 160만명을 돌파했다. 재적 가입자수 160만명은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꼴로 가입한 수치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

지 소득공제와 연부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월 2만원 가입 장려금 지원, 단체상해보험 지원과 함께 고객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심리 무료상담 서비스 ▲전국 휴양 시설 할인 ▲건강검진·예약장 할인 ▲영화·가족사진 이벤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이 이토록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의 한결 같은 신뢰와 애정 덕분"이라며 "앞으로 2030년 가입자 300만명, 부금 40조 원을 목표로 가입자 확대와 복지서비스 개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업인 행복버스' 김제서 출발

전북농협-금안농협, 찾아가는 농촌복지서비스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김제시지부(지부장 김태관), 금안농협(조합장 최승운)은 11일 금안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 4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촌복지서비스인 '농업인행복버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김제 금안농협을 첫 출발로 올해 10개 지역에서 농업인 행복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업인행복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실익사업으로 복지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장수사자 활동, 검안 및 돌보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승운 조합장은 "농업인행복버스 행사를 통해 고령 농업인 지원사업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금안농협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우리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활력을 잃은 농촌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농업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